**<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내용 분석**

유민우

# 개요

이 글의 종류는 중수필(에세이)로,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글이다. 하지만, 글쓴이의 태도 등이 무겁게 반영됨으로써 주관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이하 본문은 약간의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한다’는 주장을 싣는다. 예를 들자면, 인간이 자연 환경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제시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 사물 제시

본문은 농업과 공업을 대표하는 두 가지 사물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달력과 시계이다.

농업에선 시계가 필요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달력의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업에선 달력과 절기는 너무 길다면서 시계의 짧은 시간 단위를 강조한다.

농업과 공업은 각각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산업,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산업으로 묘사되는데, 작가의 에세이에 대한 태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 달력과 시계를 쓴 이유

달력과 함께 절기를 썼는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1차 산업은 농업이기 때문에 달력과 절기(농사진도표)가 시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계를 사용한 이유는, 공업, 또 기술이 발달되면서 절기에 상관 없이 과일이 나고, 대량 생산으로 단 일분 일초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화된 산업에서 달력과 절기는 너무 긴 시간인 것이다.

짧게 말하자면, 사람들의 생업이 바뀌었고, 바뀐 그것이 무언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도구를 사용한 것이다. 이 도구는 달력과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생업이 농업이냐 공업이냐가 중요하다.

공통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알맞은 흐름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 작가의 생각

작가는 달력을 중요시했던 과거 사람들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 즉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가 있었다고 말한다. 또, 절기가 농사 진도표라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작가는 절기에 맞추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철 없이 만들어내는 과일을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이 자연에 굴복하지 않고 자연을 이기는 것을 자연의 질서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이어 지구에 생긴 문제를 나열한다.

이 글의 끝에서 작가는 ‘인류에게는 자연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 마무리

이 에세이를 쓴 작가에게 있어서 우리는 공업이 만들어 놓은 황폐한 지구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말 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자연을 파괴하면 안된다.

글의 제목과 상반되게 이 글은 마무리가 된다. 시계가 달력을 이겼다는 말은, 공업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것은 작가가 비판하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만 존재하는 그런 회색빛 사회가 되었다는 말이다.

*한번 다 읽었다면*, 제목에서 우리는 작가에게 있어서 암울한 결과가 글의 끝에 위치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